

문화광장



장수명  
동화작가

시간이 날 때면 서점엘 간다. 갖, 기계에서 빠져나온 반짝반짝한 표지에 새 글씨 냄새를 담뱃 담고 있는 서점은 언제라도 마법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다.

‘폴리매스(Polymath)’ 이 책은 근래에 만난 그중 한 책이다. 저자 ‘와카스 아메드’, 그는 작가로서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그를 수식하는 말은 참 많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를 ‘떠오르는 청년 다 빈치’라 칭한다고 하니, 그의 깊은 통찰력과 학식, 그의 능력이 어느

폴리매스(POLYMATH)

정도인지 과히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겠다 하겠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는 전 세계 사람이 다방면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글로벌운동 ‘다 빈치 네트워크’의 창립자이며, 매년 다양한 분야의 연결을 탐구하는 ‘폴리매스(Polymath)’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하니, 그는 빠른 추진동력까지 겸비한 진정한 21세기 인간형이라 하겠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나는 그의 저서 ‘폴리매스(Polymath)’를 읽으면서 그가 던진 메시지에 더욱 놀랐다. 내가 갖는 인간상의 모델(moral)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쩌면 사람들은 책의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한쪽 방향만 보지는 않을 까 염려스러웠고, 자칫 좌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다른 방향으로 박식하기가 그리 쉬운 일

도 아니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쉽사리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재다능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독서의 오류를 범하게 되면 세상에 존재했던, 존재한 수많은 ‘폴리매스(Polymath)’들을 가득 나열 한 책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폴리매스(Polymath)’를 통해 와카스 아메드 그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자인 나, 우주인 나의 발견’이다. 어쩌면 이 부분은 읽는 독자가 알아차리는 몫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첫 장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중략……)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 (중략……) 우리보다 인생을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정상으로 규정한 방식과는 다르다. 마

치, 유체이탈을 하듯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와 과거의 역사와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두루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략……)’

나는 이 책의 첫 장을 펼치자마자, 나의 심장과 세포들은 ‘와카스 아메드’에게 관동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루하도록 ‘폴리매스(Polymath)’를 찾아내고 발현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 끝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 나의 발견, 그 초차대한 일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했다.

21세기 무한한 가능성과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 세상에서 ‘무한한 온전 체인, 나의 발견’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나의 발견, 참 나를 바라보기’ 이것이 ‘폴리매스(Polymath)’이 책의 화두다.

사설

내년 예산 긴축, 경제위기 이겨낼 수 있다

제주도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5조8200억원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확장재정 요구가 빚발

쳤는데도 사실상 초긴축 예산 편성이 이뤄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없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5조 8299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5조 8229억원)과 비교해 70억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안전·청정·복지·민생·미래 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출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42% 감소한 4조9047억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총 1조 3347억원(전체 예산의 22.9%)으

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제주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주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얘깁니다. 제주경제를 떠받치는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도민 인식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관광 산업을 꼽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차산업과 건설업 등 제주의 핵심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즐기차게 확장 재정 필요성을 달리 촉구한 것이 아닙니다.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것입니다. 때문에 내년은 과감한 재정투입이 절실한데 팽상시 치럼 예산을 편성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입니다.

수돗물 유충, 강력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서귀포시 수돗물 유충 사태가 정서화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수돗물에서 갈따구 유충이 나와 주민 불안을 가중시켰고, 해당 정수장 물 공급 중단 조치와 대체 공급 관로 가동 등에 나설만큼 전례없는 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물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수돗물 유충사태는 지난달 19일 서귀포시 한 가정집에서 처음 발견됐고, 강정정수장 운영 중단과 인근 정수장 비상 연계한 대체 공급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수도는 11월들어 문제의 강정정수장에 대해 방충망과 응집시설, 정밀여과기 설치 공사 등 시설보강에 나서 12월부터 재가동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휴일인 지난 15일 도민에 공식 사과하고,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단계에 들어섰음을 천명했습니다. 문제는 향후 먹는 물 공급의 안전성을 계속 담보할 수 있는 강도높은 대책

마련입니다. 원 지사도 이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책 제시를 다짐했습니다. 지사의 공개 언급이 결코 ‘구두선’으로 흘러선 안됩니다. 청정 제주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먹는 물’에서 유충이 발견될 줄이야 도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정수장 관리가 전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도가 현재 16개소 정수장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상시 점검과 시설 개보수 예산 확충 등의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상수도원 보호구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원거리 강호로 식수원의 안전성 확보에 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30년 이상 여과시설 교체없이 사용해 온 점 등 제기된 정수장 관리 문제점 전반을 깊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안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열린마당

서귀포시민의 이상향 칠십리축제



양관선  
서귀포칠십리축제조직위원장

서귀포시민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영원한 이상향이자 서귀포의 아름다움과 신비경을 상징하는 서귀포칠십리축제가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선물하고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우리 곁으로 찾아온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천지연광장 내 서귀포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예정이었지만 서귀포칠십리축제조직위원회와 서귀포시는 장기간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 및 관련 업계 활성화를 위해 고심 끝에 축제를 마련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규모를 축소하고, 개막식 등 대규모 인원을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현장 공연별 관람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한다. 또 행사장을 출입하는 관람객은 발열체크 및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출입을 관리한다.

첫째 날인 20일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 등 서귀포 시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남극노인성제’가 축제 시작을 알린다. 이어 지역 공연예술 및 동아리 단체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훈마당’, 서귀포 3분 관광영화제 입장작 및 제주어 홍보, 초청공연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문화도시 105분 문화버스’ 콘텐츠 홍보, ‘칠십리가요제’ 등이 각각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한다.

행사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서귀포시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실시간 생중계)으로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그동안 지치고 힘든 생활에서 잠시나마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길 희망한다. 열심히 축제를 준비하는 만큼 제주도민과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 지사, 국민 부름 크게 들리면 떠나시라”

송창권의원, 대권 행보 일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대권 도전 행보중인 원희룡 지사에게 “도민의 부름보다 국민의 부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여겨지시거들랑 현헌이 떠나가시라”고 직격탄.

송 의원은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도지사의 소임을 끝까지 마칠 것인지, 중도 사퇴해 대선후보를 할 것인지 도민들께 알려달라”고 일침.

앞서 원 지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도정 공백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 오로지까지

올해 김장비용 하향·안정세

○…올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비용이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안도.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4인 가족,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재료 구입비용은 지난해 대비 3.4% 하락한 29

만9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주재료인 배추·무가 하락하고,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채소류가 상승해 전체 김장비용은 비슷한 수준.

제주본부는 “출하량이 늘어남 배추·무와 생강은 하락했고 생육이 부진한 쪽파와 갖은 오뎅세를 보이고 있다”며 “김장비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 고대로그자

교직원 도외 방문 자제 권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6일 제주도교육청 중간기획조정회의에서 12월 3일 수능 시험 종료 전까지 교직원들의 도외 방문 자제를 권고.

이 교육감은 이날 “오늘부터 거의 모든 학교에서 전체 등교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세자리를 보이는 등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언급.

이 교육감은 교직원 도외 방문 자제와 함께 “앞으로 발표될 정부 방침을 반영하면서 초·중·고등학교 방식 변화 여부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 전선희기자

부 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9대 지부장 김도삼(향년 80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15일 19시 2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17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18일(수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양지공원 → 대전 국립현충원

부인 김순희  
아들 김유승  
경훈 며느리 나나코오바타  
재운 강은숙  
딸 명실 사위 최지호  
표리 고수일

※ 연락처 : 이재운 010-7486-0486  
강은숙 010-2695-5656  
김태범 010-3699-3688  
김백운 010-2697-1486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葬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9대 지부장 김도삼(향년 80세)께서 11월 15일 19시 27분경에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공은 인헌 훈장, 캄보디아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하셨으며 해병대 중령으로 퇴역 하셨습니다. 제주도 무공수훈자회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단을 창단하는 등 공로를 이루셨습니다. 공의 업적을 기리며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葬으로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일 포: 2020년 11월 17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18일(수요일) 오전 8시 30분  
▶장 지: 양지공원 → 대전 국립현충원

부인 김순희  
아들 김유승  
경훈 며느리 나나코오바타  
재운 강은숙  
딸 명실 표리

위원장 고훈하 부위원장 박병화  
장례위원 고시영, 김성범, 천정심

※ 연락처 : 유축대표 김태범 010-3699-3688  
무공수훈자회제주도지부 고시영 010-3689-1686  
오영지 010-2274-6578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장례위원회

부 고

전창호(前 前전 근무) 어머니 김해 김씨 낭옥(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15일 23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17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18일(수요일) 오전 8시 5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양지공원

아들 전창호 며느리 박순희  
딸 전윤숙 사위 진운림  
손자 전상균 외손자 진창현  
영균 창남

※ 연락처 : 전창호 010-6610-1293  
전윤숙 010-2689-8666  
진운림 010-2698-8660

부 고

서승철(주메디트리클 대표) 아버지 이천서공 송묵(前 연합뉴스 제주지사장·향년 83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15일 15시 5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17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18일(수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6빈소  
▶장 지: 양지공원

부인 한예선  
서승철  
승일  
안나  
지나  
후나  
명금  
계옥

※ 연락처 : 서승철 010-5236-8427  
서승일 010-4306-9536  
서안나 010-9130-563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손환애씨 보아(향년 8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17일

아들 허한권 며느리 김은옥  
허진 김귀자  
딸 허복선 사위 강승옥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